

동양잉크, 친환경제품 연이어 개발!

2003년형 Aroma-Free제품 출시 ... 저온건조성-기상안전성 업그레이드

동양잉크(대표 최청운)는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성분 함량을 1% 미만으로 낮춘 저공해 Aromatic Free 제품인 <뉴-그린피아>를 판매하기 시작했다.

2003년 10월 출시된 <뉴-그린피아>는 기존제품인 <그린피아(2000년 4월 출시)>보다 최고 20% 이상 낮은 온도에서 건조 가능한 운전 Heat Set 잉크로 인쇄비 절감효과 및 인쇄물의 주름(curl)이나 뒷묻음(Offsetting) 현상을 개량한 제품이다.

동양잉크는 <뉴-그린피아>의 장점으로 ▷잉크의 지분 수리성 및 내열성을 개선해 고속 인쇄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했으며 ▷신개념의 안료, 수지 및 특수 첨가제의 도입으로 망점 재현성이 우수하고 ▷색상이 밝고 투명해 폭넓은 연색성으로 자연색과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.

환경친화형 잉크가 지향하는 방향은 크게 대두유잉크, Aroma-Free 솔벤트 잉크(AF), 수성잉크라 할 수 있는데 동양잉크에서는 AF잉크에 중점을 두고 솔벤트 용제 잉크의 대부분을 AF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AF제품군으로 아트지(Coated paper)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<아로논-티>가 이미 출시된 바 있다.

동양잉크 관계자는 “최근 출시된 <뉴-그린피아>는 환경공해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시킬 수 있다”며 “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22>